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19화 싯다르타의 성도를 방해하는 마왕



파 피아스는 육계에 깔려있는 모든 야차(夜叉, Yaksa)와 나찰(羅刹, Rakshasa)의 악귀(惡鬼)들을 불러 모아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싯다르타를 찾아 나섰다. 이때 출동한 마군(魔軍)의 세력을 보면 마왕이 사카무니 한 사람을 얼마나 두려워 했는지 감히 짐작하게 한다. 우선 최선 두에 마왕(魔王) 마라 파피아스(Mara Papiyas)가 있고, 그 뒤를 야차(夜叉, Yaksa)군단과 나찰(惡鬼)군단들이 좌우로

에워싸며 호위하게 하였다. 선봉군의 뒤에 온갖 괴상한 형상의 군기들로 하늘을 뒤덮으며 여러 종류의 군단들이 따랐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비사차(Pisaca, 毘舍闍-食血肉鬼)부대, 아수라(Ausra, 阿修羅-싸움을 즐기는 귀신)부대, 마호라가(Mahoraga:사람몸에 뱀머리)부대, 그리고 굽반다(Kumhvanda:사람의 정기를 빨아 먹는 귀신)부대 등으로 편성되었고 중군(中軍)의 뒤를 이 세상의 이름모를 온갖 귀신들이 다 모아 따르게 하니 제 6천(第六天)이 생긴 이래 이와 같은 마군(馬軍)의 총출동은 처음있는 대 사건이었다.

비록 사카의 무니라 할지라도 아직 니르바나(Nirvana, 涅槃)의 세계에 오르지도 못한 한낱 35세의 청년 왕자를 세간의 오욕으로 유혹하지 못하고, 이제와서 제 6천의 모든 마병(摩兵)을 동원하여 싯다르타가 좌선(坐禪)하고 있는 필팔라(Pippala, 필팔라)나무를 겹겹이 둘러 싸고 보니 마왕자신이 너무나 과잉반응을 한 것 같아서 약간 계면적(界面)이 되었다. 마라 파피아스

는 야차대장과 라찰대장에게 명령하여 마병들을 약간거리를 두고 기세를 올리며 대기하도록 하고 그 자신이 직접 싯다르타와 단독으로 결판내어 그의 항복을 받아내려 했다. 이리하여 싯다르타의 눈앞에 나타난 마왕은 최후의 통첩을 띄우며 싯다르타의 항복을 유도했다.

“사카의 왕자여, 나의 이 엄청난 마군단을 어찌 생각하는가? 물론 두려울테지. 내 일찍이 회마리아의 여신을 위하여 마헤스바라(Mahesvara)신을 쫓아, 능히 그의 양보를 받아내었거늘 한낱 사카의 왕자를 움직이지 못하라. 그대가 진정 도인(道人)이라면 남과 더불어 싸우고 원수짓고 탐내고 성내는 어리석은 짓을 삼갈 것인 즉 지금이라도 즉시 그 좌선을 풀고 도망을 치면 내 그대를 다치지 않고 보내줄 것이고, 또 만약 항복을 해온다면 내 그대에게 큰 벼슬을 주어 편히 살게 해 줄 것이다.”

“지금 그대의 눈앞에 웅크린 나의 병사 백만과 웅장 일천명이 그대를 백경으로 둘러싸고 있다. 내가 지금 칼을 빼어 그대

의 목을 치면 그대의 모든 고행의 결과는 허무하게 끝을 맺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모기 한 마리를 죽이려고 무거운 도끼를 쓰는 격이어서 혹시 보는 이들이 웃을까 두려워 하는 바이로다.

그런 까닭에 내 다시 한번 좋은 마음을 일으키어 그대를 타 이르는 것이니 이 자리에서 그대의 태도를 분명히 하라.”

“내 들으니 일찍이 아시아 선인이 하늘의 비밀을 폭로하여 그대의 장래를 예언했다하여 웃었더니 과연 그대는 만병을 무서워 하지 않고 나의 자비로운 제안도 못들은 척하니 그 배짱도 한번 큰 것을 알겠노라. 내 그대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노니 붓다(Buddha)가 된다거나 해탈을 얻겠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므로 차라리 이 세상을 지배하는 차크라 바르틴(轉輪聖王)이 되겠다고 내 그대를 도와 그 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리라.”



“그대는 지금 해탈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했지만 그런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세계로서 그대 자신이 지난 6년간의 고통을 통하여 이미 경험하여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어차피 불가능한 세계로 오르겠다고 하여 이 육계를 어지럽힌 죄 백번 죽어 마땅할 것이지만 그대의 젊음을 불쌍히 생각하여 다시 한번 이르노라. 정녕 세계를 지배하는 차크라 바르틴 대왕이 싫다고 한다면 차라리 나를 따라 제 6천에 올라 내 자리에 오르면다 세상 지배하는 전륜성왕 보다 더 큰 육계의 천왕으로 모든 소망을 단번에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대답하라 사카의 왕자여! 나로부터 더 이상의 양보는 있을 수 없다. 내 말을 따르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내 손에 죽든지 그뿐이로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마라 파피아스의 말처럼 싯다르타는 아직까지 니르바나(Nirvana, 涅槃)의 경계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다. 다만 6년의 고행 끝에 이제야 겨우 열반으로 가는 올바른 길로 들어섰다고 느끼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 정도 만으로도 육계의 대왕인 마라 파피아스는 백만의 온갖 잡귀들을 모조리 소집하여 싯다르타의 성도를 방해하기 위하여 총출동시키고 있다. 그 뿐 아니라 급기야는 왜 그

자신의 자리까지 내어 놓으면서도 한사코 싯다르타가 해탈의 경계에 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마왕을 그토록 두려움에 떨게 하는가?

“내가 너와 싸워 이기면 인랑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 내가 너에게 항복하겠는가. 나는 기어코 열반에 오를 것이다. 그런 다음 마음대로 사고를 통제하고 사면을 굳게 하여 여러나라를 편력하여 널리 사람들을 깨우칠 것이다. 나의 가르침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날, 사람들이 모두 욕망을 버리면 너는 육계(欲界)를 지배할 무기가 없게 된다. 이때 너는 이 세상에서 설자리를 잃고 영원히 소멸될 것이다. 너는 지금 그 점이 두려운 것이다.”

싯다르타의 이야기를 들은 마왕 파피아스는 더 이상 싯다르타를 그의 육계에 잡아 둘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깨달았다. 이제는 그의 힘으로 싯다르타를 무찔러 없애는 길 뿐이었다. 갑자기 바람이 사방에서 세계 일어난 온 신의 풀과 나무들이 떨었다. 마침내 파피아스의 노여움이 폭발한 것이다. 마라 파피아스의 명령으로 백만의 마군병사들이 일제히 화살에 불을 당겼다. 그리고 싯다르타를 향해 쏘아댔다.

“오 육(五慾)의 세계를 지배하는 마왕 파피아스여, 네가 비록 천만년 전에 신통변화를 얻어 제 6천의 제왕으로 육계(欲界)의 주인이 되어 지금 해탈을 눈앞에 둔 나 한 사람을 처치할 목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못된 잡귀들을 다 모아 마군을 조직하고 지금 나를 에워싸며 차마 듣지 못할 해괴한 괴변만을 늘어놓고 있으니 참으로 불쌍하고 가소롭도다.

너희들이 아무리 활과 창과 도끼를 들어 나를 위협한다 해도 나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으니 그 점을 똑똑히 알라. 내가 지금 이 필팔라 나무아래에 결가부좌(結跏趺坐)하고 있지만, 지금의 이 자리는 성도에 이르는 신성한 곳으로 너희 같은 쓰레기 마군(摩軍)들로서는 내 몸의 터럭하나도 건드릴 수 없을진대 내 어찌 너희들을 무서워 하며 쓸데없는 말에 귀를 기울여 유혹에 다시 빠져들 것인가.”

